

코로나19 극복 따뜻한 동참 잇따라

팔봉·남중·영등동 건물주,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선언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은 가운데 익산에서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상생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인하, 경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연장, 대학가 원룸 지원 대책 발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동의 한 건물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난달부터 매월 임대료의 25%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어 남중동에서도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오는 8월까지 매월 최대 2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건물주가 나타났으며 팔봉동의 건물주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달부터 경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매월 임대료를 2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팔봉동 건물주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주께서 먼저 임대료 인하를 제안해 힘이 됐다"고 익산시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건물주는 지난 5년간 입점 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지역경제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시는 이같은 사례를 계기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 건물주의 선행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각종 유인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역의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일부터 중앙, 영등, 모현1·2 공

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전원 기숙사 입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원룸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원룸주들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공공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지역화폐 '익산다이어움' 인센티브 10% 적용기간 1개월 연장 등 다양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뜻 도움이 손길을 건네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행정에서도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코로나19 극복 '임신·육아' 지원 강화

익산시, 임신부 대상 순차적으로 마스크 1만장 배부

익산시가 임신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확보된 마스크 1만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1인당 10장씩 우선적으로 배부되며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신부나 가족이 산모수첩을 소지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등록된 538명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 5장씩 1차 물량을 배부한 바 있으며 당시 마스크를 발급받은 임신부는 2차 배부 시 5장만 지급된다.

또한 오는 9일부터 4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약 300세대에 마스크 10장

씩 지급하는 등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며 이달 말까지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시간 한도인 연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시간 당 9,890원인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10~40%까지 확대되며 지원 대상은 맞벌이와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정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마스크 구하기 동분서주

마스크 생산 공장 찾아 정부 공적공급 물량 외에 군산시에 우선 공급 부탁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직접 공장을 찾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강 시장은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YJ코퍼레이션 마스크 생산 공장을 찾아 정부의 공적공급 물량 외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량을 군산시에 우선 공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는 최근 YJ 코퍼레이션과 3월말까지 10만매의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2만매씩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마스크 부족을 이유로 공급이 줄어들자 이날 강 시장이 직접 YJ 코퍼레이션을 방문해 부족분을 받아 왔다.

군산시는 지난 2월에도 지역 내 첫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해 마스크 10만5천여장을 구입해 읍면동 안전취약계층과 대중교통시설, 경로식당 등에 적기에 배부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강 시장은 지난 2일에는 정부에서 마스크 공적공급을 시행하고 있



지난 6일 새벽 강 시장은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YJ코퍼레이션 마스크 생산 공장을 찾아 정부의 공적공급 물량 외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량을 군산시에 우선 공급해 줄 것을 부탁했다.

는 관내 우체국 등을 방문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물려진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마스크 공급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부의 공적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우선으로 실행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

직지도 시민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조금만 인내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경제상황으로 시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정훈 기자

군산사랑배달앱 13일 출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되며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오는 13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군산만의 음식배달 어플인 "배달의 명수"로 참여할 골목상권에 희망의 불씨를 피울 예정이다.

배달의 명수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

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는 배달의 명수가 사용할수록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힘이 되며, 소비자는 지역상품권 결제와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사업주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어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 출시 이벤트로 500명에게는 주문 시 2,000원 할인, 가맹점 자체 할인 쿠폰 발행 및 무료배송, SNS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사진 공모 등 배달의 명수 출시와 함께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푸른 도심 만들기 나무심기 운동 전개

군산시가 푸른 도심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대안으로 시작한 10년 역점사업인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지난해 목표치인 37만 5천 그루를 상회하는 48만 그루를 식재하며 순조로운 순항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는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10개 분야에서 36만 4천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시민과 기업체의 현수포 수송동장미 투화거리 조성 등 5억 원 상당의 현수 사업이 이뤄져 시민의 적극적인 참

여가 돋보였다.

특히 25억 원을 투자한 금암동 도시재생숲은 폐철도로 버려진 공간에 숲을 조성해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61만 그루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나무심기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4.86ha 등 10개 사업에 49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현수 장소를 제공해 자발적 현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익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검토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점포 및 참고로 대상으로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조례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코로나19 종식 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하고자 현재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들어 상인들의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에 빠진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여 하루 빨리 전통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역 일제 소독 실시

익산시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공공단체 등과 함께 전 지역 소독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소독제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소독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 6일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29개 읍면동 약 1,500여명의 자생단체,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등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정현을 익산시장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신동 대학로 일원을 누비며 소독 활동을 펼쳤으며 방재 차량 3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를 방역하는 등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펼쳤다.

정현을 시장은 "일제소독의 날을 통해 시민들이 소독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위기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이중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